

『정보통신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발간

우리협회는 '96년도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했다.

이번조사는 기술인력의 배출과 현재의 고용통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기술인력 수급정책과 기업의 장단기 기술인력 확보방안에 기여하고자 각대학의 정보통신관련학과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자료문의: 본 협회 조사연구실 5131-181~4)

기기제조업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 추천

우리협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병역특례지정업체선정 추천업무를 담당한다.

병역특례지정업체 선정은 제조업 등의 인력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또는 공익근무 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생산현장에 직접 활용케함으로서 기능인력의 공급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소기업체 위주로 선정을 추진한다.

병역법과 국가기술자격법, 직업훈련 기본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이 업무는 정보통신부와 산하 체신청과 우리 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정통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여 병무청에 추천하는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신청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10일 사이이며, 병무청 최종선정 시기는 매년 10월31일이다. (문의: 제도개선과 5131-121~2)

AV 표준 관련 DAVIC-KR분과위 구성

우리협회 산하 멀티미디어협의회에서는 DAVIC(Digital Audio-Visual Council)의 표준활동에 대해 업계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멀티미디어 기술 표준화에 대한 업계 공동 노력의 장을 마련하고자 DAVIC-KR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DAVIC-KR분과위원회에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체에 DAVIC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저렴하고도 신속히 전달하고, 관련 업체간의 표준 관련 상호협력, 표준에 입각한 기술모델의 개발, 국제회의에서의 국내 업계 의견 개진 등 DAVIC활동의 공동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DAVIC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 표준화 기구로서 대화형 Audio/Visual 응용과 서비스의 성공적인 실현을 목표로 DAV(Digital Audio Visual) 서비스 관련 국제표준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있다.

DAVIC은 다양한 통신매체들을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접속과 프로토콜에 관한 국제 표준규격 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Core 서비스라고 명명된 DAVIC SPEC1.0 표준 규격을 발표한 바있다. 한편 우리협회는 최근 DAVIC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DAVIC 표준의 응용과 방향” 세미나

우리협회는 오는 7월15일(월)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의 과학기술회관에서 “초고속정보통신시대의 DAVIC표준의 응용과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협회 산하 멀티미디어협의회와 DAVIC-KR분과위원회 창립을 기념하는 행사로 주제 발표자로서 미국 DAVIC 뉴욕회의 관계자를 비롯하여 이경준 한국통신 국장, 민홍식 KBS기술연구소 소장, 송관호 DAVIC-KR분과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이들은 DAVIC 관련 현황과 전망, 초고속망과의 관계, 멀티미디어 서비스 및 디지털 방송서비스 기술 등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한다.

DAVIC은 대화형 A/V응용과 서비스의 성공적인 실험을 목표로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 관련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제기구이다. (문의: 5131-141, 담당 신영섭)

##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안) 관련 건의

우리협회는 초고속망사업단이 발표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자승인제도(안)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초고속망사업 진입규제 완화, 사업대상지역의 확대와 기간통신망과의 관계 제도적 보장, 기술적 가이드 라인 제시, 기간망 정보 공개, 사업자 신청서류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 사업추진 가이드 라인 제시, 망사업자 여신규제완화, 세계지원확대, 정보화 촉진기금 지원 검토, 망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정부가 초고속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모델링 제시 등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 '네트워크 사회의 빛과 그림자' 워크숍 개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9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9일(수) 타워호텔 프린스룸에서 '네트워크 사회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하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백 연구재단 공성진 소장은 '미래 사회에서의 정보통신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정보사회에서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조명했으며 또한 네트워크 사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 양상 등에 대해서는 정보차원 분야의 불공정성, 정보공급 과다로 인한 정보공해 문제, 통신기기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호중 사무국장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인식전환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과 새로운 세계의 기대감에서 오는 사회변화, 네트워크 사회가 출현하게된 역사적 배경과 가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한 정보통신의 역할과 네트워크 과급효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아울러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소년문화연구소 김옥순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보보호센터 박광진 팀장을 비롯한 7

명의 토론자가 참석해 전문 분야별로 네트워크 사회의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을 진단했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기술발전에만 치중했던 정보사회에 대한 평가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재조명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 한국EC협의회 TFT회의 개최

우리협회내 한국EC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21일 '96년 한국 EC협의회연구결과 보고회 워크숍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관련기업들간에 공동으로 국내 EDI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제1차 TFT(Task Force Team) 미팅을 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TFT 공동의제 발표와 각 회원사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특히, 전담사업자와 VAN사업자들간에 공동으로 국내 EC 및 EDI 발전방향에 대한 폭넓은 교류가 있었다. ◆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부산대학교 대강당에서 "CALS진흥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CALS/EC 기술협회, 부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96년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부산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겸해서 열렸다.